

「오카야마시장 메일 매거진(126)」레이와 2년 4월 17일 호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정부는 지역감염 확대를 억제하고 특히 황금연휴에 따른 국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긴급사태 선언' 대상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오카야마시도 대상 구역이 됨에 따라 17일 개최된 제 11 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회의에서 대응을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전날 16일 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시립(市立) 초·중학교 수업 지속 방침은 철회하고 4월 21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시립 초·중학교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도 휴원을 결정, 필요한 분에 대한 보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보육원, (인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등원 자제 요청'을 하지만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분이 상당수 계시므로 운영(개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과 후 교실(아동 클럽)에 대해서는 시립 초등학교 휴교에 따른 대응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하되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가정에서의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6일에는 오카야마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오카야마현 상공회 연합회 회장님께서 오카야마 경제계의 피폐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상황 파악에 힘써 경제 대책을 조속히 논의하고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다른 현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외출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부탁드립니다 '밀폐공간·밀집장소·밀접접촉' 이라는 '3밀(3密)'을 철저히 피해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필품 구입, 통원치료 등의 외출은 제한되지 않으며 시청 창구 업무와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등의 라이프라인에 관한 업무는 계속합니다. 생필품 사재기 등을 하지 않도록 침착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 점을 감안하여 감염 확대의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나가며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감염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높은 위기의식을 갖고 행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